친화적 기화성 방청제(VCI) 국산화 통한 고품질 추구

원칙 및 품질 경영 통한 이미지 제고 주력

◀ 이정록
(주)마이크로마크 대표이사

자동차를 비롯한 항공기, 조선, 정밀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 금속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 물품의 장기 보관 및 수송에 있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녹'을 방지할 수 있는 방청작업이다.

그 동안 방청이 필수불가결한 산업 분야에서는 '녹' 방지를 위해 방청액과 방청유, 진공 포장과 같은 방청 방법을 적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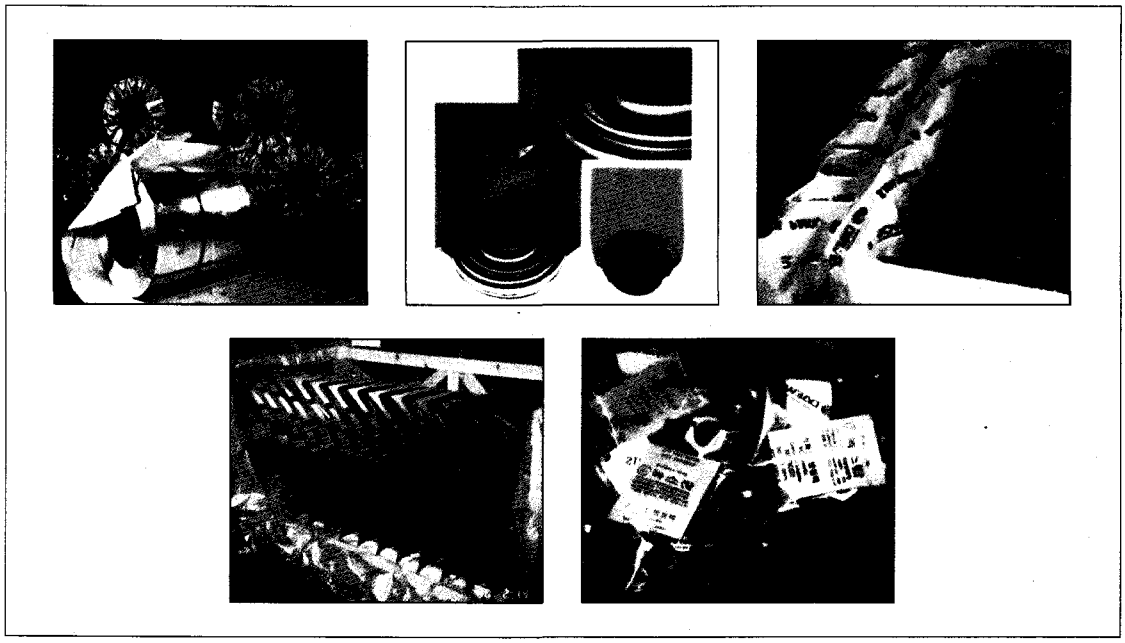
이중 방청액과 방청유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원료구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진공포장 방법은 가장 완벽한 방청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정 공정이 필요없다는 특징때문에 많이 이용돼 왔다.

하지만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은 별도의 공정과 포장기술이 추가돼야 할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고가의 설비가 필요하는 등 많은 단점들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새롭게 제기된 방청방법이 바로 VCI(Volatile Corrosion Inhibitor)라 불리는 기화성 방청제였다.

VCI는 방청액, 방청유가 침투 못하는 곳까지 방청이 가능하며 운반, 수송, 보관이 편리하도록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정이 간단해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데다 환경오염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사용해야 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VCI의 국산화에 이바지하면서 녹스탑(녹 방지를 위한 기화성방청제) 전문제조회사로 내실을 기해온 (주)마이크로마크(대표이사 이정록)를 찾았다.

경기도 안양 동일테크노타운에 자리잡은 (주)마이크로마크는 지난 1996년 창립이래, 녹과 환경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내실있는 업체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 (주)마이크로마크의 녹스탑 제품들

국내 · 외 협력업체 등록으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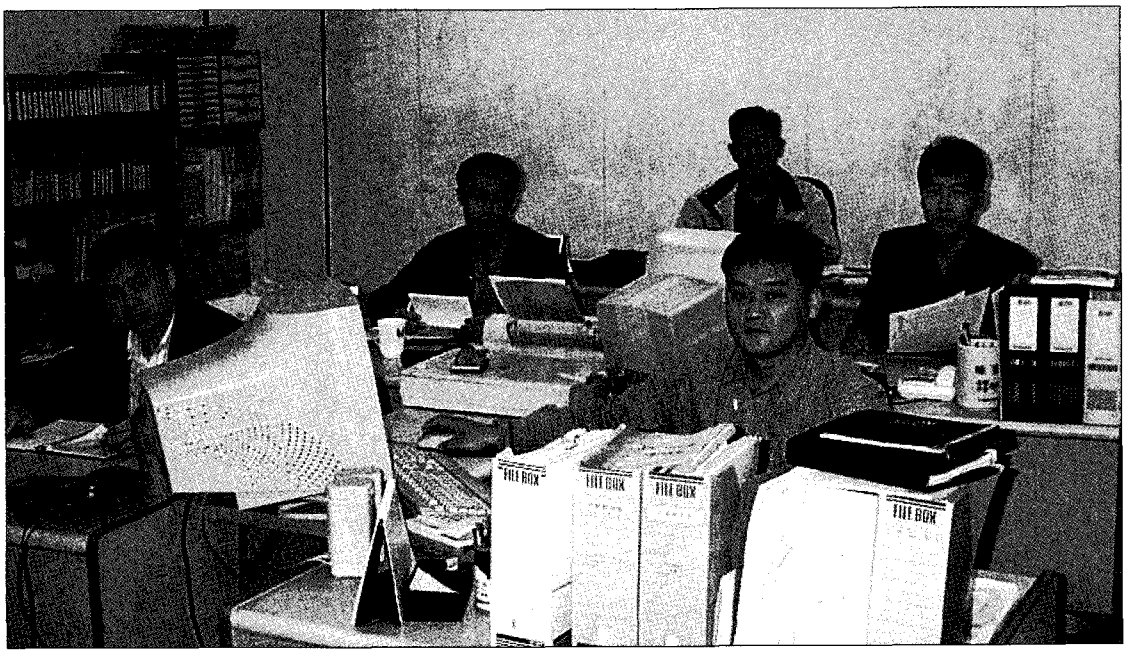
(주)마이크로마크는 지난 97년, 쌍용자동차 협력업체에 등록, 녹스탑 필름을 납품한데 이어 같은해 8월에는 녹스탑 제품 국산개발을 완료해 양산을 개시했다. 또한 대우중공업과 삼성전자에도 협력업체로 등록을 했으며,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까지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97년 9월, 대만과 중국에 해외대리점을 개설했으며 98년에는 대우중공업 조선분야의 포마사 프로젝트에 녹스탑 파우더를 납품했다. 또한 99년, 중국 북경현지에 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중국의 청도, 위해, 연대 대우자동차에 녹스탑 필름 수출을 개시해 그해 6월에는 중국에 녹스탑 원료를 20만불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주)마이크로마크의 녹스탑은 크게 VCI FILM, VCI PAPER, VCI LIQUID, VCI POWDER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녹스탑 VCI FILM은 VCI 레진과 PE 레진을 혼합해 압출 가공한 기화성 방청필름으로 철 및 비철금속 제품을 포장, 운송,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녹 방지용 포장재이다. 이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금속으로 제작된 부품이나 완제품 포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용량 및 대용량의 방청 포장에 적합하다.

VCI LIQUID는 액체의 특성상 기화속도가 빠르므로 방청유 그리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단기적 방청이나 밀폐포장 상태에서의 방청 보조제로 사용되며 방청필름, 방청지, 방청 파우더 등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특수 방청용도로 사용하기에 좋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주)마이크로마크의 사무실 전경

은 장점이 있다. 또한 기화성 방청 파우더를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에 넣어 단위별로 개별 포장한 녹스탑 VCI PAC와 금속제품들의 녹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녹스탑 파우더를 통기성이 좋은 스폰지 내에 넣어 후면 접착이 가능해 어떤 위치에서도 설치 가능한 녹스탑 VCI CAPSULE 등도 있다.

이런 녹스탑의 모든 제품들은 포장형태에 따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제품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개척 어려움 딛고 고객 신뢰 쌓아

(주)마이크로마크의 이정록 사장은 방청 전문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국내 시장 개척 문제'와 '제품 테스트 기간의 장기화'에서 온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화성 방청제를 수입에만 의존해 사용해 온 국내 업체들에게 국산화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 하지만 이정록 사장은 그간의 노하우로 이제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마이크로마크의 제품은 "녹을 방지할 뿐 아니라 녹의 처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고품질의 제품"이라는 신뢰를 쌓게 만든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기화성 방청제의 국산화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저품질, 저가격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하는 업계의 난립속에서 (주)마이크로마크는 녹

▲ (주)마이크로마크의 자재 창고

에 관한 전문기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밝혔다.

정도 경영실천으로 업계 선두기대

이정록 사장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 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무슨일이 있어도 품질에 우선을 두고 납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피력하면서 (주)마이크로마크가 녹에 관한 원천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녹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있게 밝혔다.

방청이 잘 된 자동차를 수출해 밴더들로부터 (주)마이크로마크의 제품은 세계 어디를 간다해도 '녹' 발생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다는 이정록 사장. 그는 15명 남짓한 직원들 모두가 자기 맡은 일뿐만이 아닌 (주)마이크로마크 경영 전반의 전천후 역할을 하며 "우리 모두의 회사"라는 자긍심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은 인복(人福)이 많은 것 같다고 흐뭇하게 말했다.

(주)마이크로마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위치에 서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정록 사장. (주)마이크로마크는 오늘도 기본을 강조하는 원칙 · 품질 경영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와 발전을 위해 기화성 방청 업계 선두를 향해 달리고 있다. ko

박초혜 기자